

## 경제

232만원 빌려 연 이자로만 94만원 내

## 대부업 이용 서민들 허리휜다

작년 광주·전남 6104명이 142억 써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광주·전남 서민들이 지난해 1인당 평균 230만원을 빌려 연간이자로 94만8000원을 내는 등 이자부담에 허리가 훤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광주·전남지역을 포함한 전국 대부업체는 3107억원의 순이익을 내 배를 불렸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작년 말 기준으로 분석대상인 680개사가 167만4437명에게 5조 9114억원을 빌려준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3월 말과 비교해 분석업체가 976개, 감소했음에도 대출금은 오히려 14.6% 늘어난 것으로 서, 국제 금융위기 전인 2008년 9월

말 5조6065억원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1인당 대출금은 350만원으로 작년 3월 말보다 10만원 줄었다. 신용대출의 경우 평균 300만원이고, 담보대출은 1000만원이었다.

광주·전남지역의 총 대출규모는 142억여원이었다. 자산 70억원 미만 법인(16개)과 개인업체(275개)가 모두 6104명에게 빌려준 금액이다. 1인당 평균 대출금은 232만원꼴이다. 이를 작년 말 대부업체 신용대출 금리 41.2%로 계산하면 연간 이자만도 59억700만원에 달한다.

1인당 연평균 이자는 94만7600원으로, 같은 금액을 은행권 대출 평균 금리(7%)로 환산한 금액(6만1000원)

원)의 6배에 육박한다.

광주의 경우 법인(15개사)의 대출금은 모두 25억원이었으며 거래자 407명의 1인당 대출금은 610만원으로 전국 16개 지역 평균(430만원)을 크게 웃돌았다. 전남은 1개 법인에서 21명이 1인당 300만원을 빌려냈으며, 이는 전국 16개 지역 가운데 가장 적은 금액이다.

개인 대부업체는 광주의 경우 155개로 모두 3994명에게 모두 78억원을 빌려졌다. 1인당 평균 대출금은 195만원으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5번째로 많았다. 전남에서는 120개사가 2110명에게 1인당 평균 184만원 꼴로 39억원을 대출했다.

전국적으로 대부업체의 연체율은 13.2%로 작년 3월 말보다 4.7%포인트 하락했다. 담보대출 연체율은 23.6%로 15.2%포인트, 신용대출

연체율은 11.1%로 2.5%포인트 떨어졌다.

신규대출 이용자(57.4%)는 회사원이고 다음으로 자영업(18.9%), 학생·주부(6.0%), 공무원(3.0%) 순이었다. 대출 목적으로는 생활비 충당(33.5%), 사업자금 조달(20.2%)이 많았다.

이들 대부업체는 지난해 3107억원의 순이익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자산 70억원 미만 대부업체 411개사의 대출금은 4627억원으로 전체 대출금의 7.8%였고, 개인 대부업 6360곳의 대출금은 3765억원으로 6.4%를 차지했다. 금융위기 관계자는 “제도권 금융회사들이 서민금융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면서 이자부담이 큰 대부업체에 대출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영기자 penfoot@kwanju.co.kr

## 올 지역 주택건설 81.3% 증가

전남 3575가구...작년보다 2배이상 늘어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올 해 1~4월 광주·전남지역 주택건설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주택건설(인·허가) 실적’을 보면 올해 1~4

월까지 광주 789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741가구)보다 6.5% 늘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 이전인 최근 5년간 평균 4122가구보다는 80.9% 감소했다.

전남은 주택건설 실적이 3575가구로 지난해 1665가구보다 2배이상(114.7%) 급증했다. 최근 5년간 평균(2559가구)보다도 39.7% 늘었다.

전국적으로는 7만625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5만331가구보다 2만

가구 이상 늘었다.

수도권(4만2751가구)이 66.2%, 지방(2만7874가구)이 13.3% 늘었

고, 사업주체별로는 공공부문이 62.9% 감소한 반면 민간부문은 60.6%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3만6842가구, 다세대·다가구가 1만8227가구로 각각 19.5%, 170.5% 늘었다. 연립 및 단독주택도 1만5551가구로 21.8% 증가했다.

그러나 올해 1~4월 주택건설 물량은 최근 5년(2005~2009년)의 같은 기간 평균보다는 15.1% 줄어든 것이다.

/박정우기자 jwpark@kwanju.co.kr

## 허창수 GS회장 ‘현장경영’ 속도낸다

경주 신월성 원전·목포대교 방문 직원 격려

“흔은 시공으로 강한 현장 경쟁력을 가져달라”

허창수 GS그룹 회장이 ‘현장경영’의 속도를 높였다. 허 회장은 25일 목포시 죽교동 목포대교 건설현장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했다.

허 회장은 평소 GS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일선 현장에서의 노력이 기본이 돼야 한다는 신념으로 “현장이 강한 GS를 만들어가자”고 주문해왔다.

허 회장은 “최근 건설경기가 침체돼 있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는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강한 현장 경쟁력이 필요하다”며 “우리의 실행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반드시 끌어올리겠다는 열정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회장은 평소 GS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일선 현장에서의 노력이 기본이 돼야 한다는 신념으로 “현장이 강한 GS를 만들어가자”고 주문해왔다.

목포 죽교동과 고하도를 잇는 목

포대교는 GS건설이 주 시공사이며, 현대건설, 한양, 남영건설, 남진건설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

500m에 달하는 사장교다. 사장교 900m, 접속교 구간 2160m, 시종점 구간 1069m 등 총 길이 4129m로 2012년 6월 완공 예정이다.

/박정우기자 jwpark@kwanju.co.kr

목포대교는 두 개의 주탑 거리가

500m에 달하는 사장교다. 사장교 900m, 접속교 구간 2160m, 시종점 구간 1069m 등 총 길이 4129m로 2012년 6월 완공 예정이다.

/박정우기자 jwpark@kwanju.co.kr

목포대교는 두 개의 주탑 거리가

## 대인동삼일부동산

☎(FAX)223-1772 팩 010-802-2532  
(광주은행 신본점점 대인동 소방서건너편)

##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손님으로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을 사실분과 얻으실 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시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을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 상무랜드공인중개사

☎(FAX)383-5221 팩 011-603-5221  
(상무지구 이바동 김자현 1층)

## 토지매매

위치	면적(평)	구역	대금
상무지구	1,652㎡ (500)	상업	1,100만원
상무지구	2,247㎡ (680)	상업	1,200만원
상무지구	826㎡ (250)	상업	1,000만원
상무지구	3,422㎡ (1,036평)	업무	800만원
동산동	22,000㎡ (15,300평)	전답	10만원
나주군포	15,300㎡ (1,352)	조경	35만원
동림동	4,468㎡ (1,352)	준주거	350만원

## 건물매매

위치	임대	월세	매매금액
보증금	37억원	3,000만원	85억원
현단지구	7억원	1,700만원	32억원
상무지구	100억원	5,000만원	200억원
상무지구	25억	6,500만원	100억원
현단지구	4억	1700만원	28억원

## 맞춤주문 받습니다.

원하시는 물건 찾아 드리며,

정리하실 물건

팔아드려겠습니다.

★ 아무때나 전화 주십시오★

## 현대공인중개사

T. 062)371-1900, 010-2006-0115  
상무 우리병원에서 50m지점

## 토지매매

▶ 매월등 준 공급지역	
● 골프연습장 인근, 대로변, 2780㎡(841평)	매도가 22억원
● 궤설 길 도로변 대지 빼매	
● 신촌동 1,114㎡(337평) 매매가 6억 7천만원 가능	
● 개발공사지 56평, 대출 3억 ~ 9천만원 가능	
● 주거지역, 전시장, 카 센터, 사무직업	

## 마트등 대로변 토지 매매

● 지하철 시장과 뒷면 도로변, 생신녹지 860㎡(260평) 매매가 7억 8천만원	
● 지하철 1종 일반주거지역	2억 4천만원
● 신수동 1744㎡(195평), 548㎡(196평)매도가 각각 1억 2천만원	
● 박호동 645㎡(195평), 548㎡(196평)매도가 각각 1억 2천만원	

## 벽진동 찾고, 광장부지

● 벽진동 697㎡(211평) 일반주거지역, 디지, 매매가 1억 4천만원

## 광산구 1종 일반주거지역 매매

● 신수동 1744㎡(195평), 548㎡(196평)매도가 1억 8천만원

## 박신동 대지 매매

● 박신동 대지 278.5㎡(90평)/건평 123.5㎡(373평)

지하 1층, 지상 5층, 건폐 2~3%, 목동(3동영)

상가 일대로 보증금 1억9천만원 월 340만원

보증금 8천만원 월 700만원 꾸밀없음

## 상가 및 목재탕 건물 매매

● 박신동 대지 367㎡(10평)/건평 123.5㎡(373평)

지하 1층, 지상 5층, 건폐 2~3%, 목동(3동영)

상가 일대로 보증금 1억9천만원 월 340만원